

남원 탈주범 얼굴도 몰랐던 광주경찰

광주잠입 일주일째 행방 파악 못해 시민 불안

광주 잠입한 탈주범 이대우(46·강도 절도 전과 12번·사진)의 행방이 일주일째 오리무중이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탈주한 뒤 경찰이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고 검문 검색을 강화했는데도, 보란 듯 범행을 저지르는가 하면, 광주로 잠입해 1주일 이 넘도록 행적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들조차 이씨의 얼굴을 몰랐다가 피해자 신고로 뒤늦게 행방을 쫓는 등 허술하게 대처하고 있어 치안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아예 범인 검거보다는 '제발 내 관할 구역만 피해갔으면' 하는 복지부동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2200명 동원 검문검색 했었는데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30분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 N마트에서 현금 30만 원·회색 운동화 한 켤레를 훔친

뒤 서구 농성동 한국건강관리협회 인근 도로에서 택시를 잡는 장면이 CCTV에 마지막으로 포착된 뒤 행방을 감했다.

경찰은 당시 N마트가 탈락했다는 신고를 받고 인근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 분석했지만 마트 절도범이 이씨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탈주 뒤 전북경찰이 전국 경찰에 지방수배를 내리고 얼굴 사진을 담은 수배 전단을 배포했지만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다.

민간인들도 수배전단, TV뉴스를 통해 얼굴을 익혀 비슷한 사람만 나타나도 신고하는데 도둑 잡는 경찰이 탈주범 얼굴도 몰랐다는 점에서 허술한 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경찰은 이씨가 광주에 잠입한 사실도 닷새 만에 파악하는 등 초조 조



검 남원지청에서 수갑을 찬 채 도주, 택시를 타고 오후 5시30분께 광주역에 도착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치의 허점도 드러났다.

◇추가범행 우려, 제발 내 구역만 =경찰은 뒤늦게 부랴부랴 이씨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강도·절도 등 전과 12번인 점에 주목, 광주에 잠입한 20일 오후부터 전날까지 일주일 간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절도·강도 등 범죄 신고와의 연관성을 찾고 있다. 또 주요 지역의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 분석하는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사건을 해결할만한 실마리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씨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장소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었던 점으로 미뤄, 이미 광주를 벗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남자가 女화장실 들어가면 주거침입?

서부경찰, 불일 급해 뛰어든 30대 입건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면 주거침입?'

25일 자정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의 한 빌딩 1층 화장실. 불일이 급했던 황모(36·건설업)씨는 마침 이 건물 화장실을 찾았지만 아쉽게도 남자 화장실은 꽉 찬 상태였다. 급한 김에 황씨는 여자 화장실로 뛰어들었다.

불일을 다 본 황씨는 그 이후가 문제였다. 밖에 여성이 있어 나갈 수 없었기 때문. 밖이 굶금했던 황씨는 변기를 덮고 올라갔다가 용변을 본 후 손을 씻고 있던 A(여·29)씨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다. 놀란 A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불합했다

경찰에서 황씨는 "남자화장실

에 반강이 없어 여자화장실을 이용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대전에서 한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성폭행한 사건에서 남자에게 주거침입감각죄를 적용한 바 있다.

광주서부경찰은 여자화장실은 원칙상 여성만이 점유하는 공간으로 인정되는데, 남성인 황씨가 들어간 상태 때문에 일단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는 한편,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동기를 구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광주·전남 주말 사건·사고 일록

장애인 화물차 치어 숨져 택시기사 신호기종들 사망

26일 새벽 2시50분께 목포시 옥암동 한 도로에서 장모(29)씨가 운전하던 택시가 보도블록, 교통신호기 등을 들이받았다.

이날 사고로 운전석에 있던 장씨가 충격으로 튀어나와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 당시 택시에는 장씨만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좌회전 구간에서 장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

앞서 지난 25일 오전 10시25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풍암호수공원 앞

사거리에서 길을 건너던 지체장애인 최모(78)씨가 강모(37)씨의 1t 화물차에 치어 숨졌다. 지체장애 2급인 최씨는 이날 전동휠체어를 타고 길을 건너다 변을 당했다.

사고 현장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무단횡단이 빈번히 이뤄지는 장소로, 경찰은 운전자인 강씨가 급브레이크를 잡은 조작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또 이날 오후 3시 50분께 고흥군 점암면 한 농로에서 이모(68)씨가 운전하던 트럭터가 추락해 이씨가 트럭터에 깔려 숨졌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고흥=주각중기자 gju@



5·18 청소년 문화제 '레드 페스타'

기하는 유쾌한 프로그램이다.

지난 25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5·18 청소년 문화제 '레드 페스타'. 각종 공연을 보러온 청소년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5·18 기념재단이 주관한 '레드 페스타'는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5월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학생 야외활동 '살인 진드기' 주의보

교육부, 학교에 예방 당부

교육부는 26일 체육활동 등 학생 야외활동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등 예방을 철저히 할 것을 일선 학교에 당부했다.

야생진드기를 통해 감염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 사례가 공식 확인됐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가 밝힌 예방법에 따르면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수풀이나 나무가 우거진 곳에서 활동할 때에는 긴 바지와 긴 셔츠를 입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부모는 아이가 수풀에 다녀온 경우 물린 곳이 없는지 관찰하고, 진드기에 물렸다면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

/*박정렬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서 '살인 진드기' 소동

60대 여성 감염 의심 증상 입원... 오늘 퇴원

'살인 진드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광주에서도 발견되면서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환자 증세가 호전되는 등 '살인 진드기'로 알려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가 아닐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도, 전국에서 감염 의심환자와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시민들이 긴장하고 있다.

광주시는 26일 A(여·61)씨가 SFTS 바이러스 의심 증상을 보여 화성 전담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다

정도로 증상이 심각하지는 않아 27일 퇴원할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관리본부는 A씨가 실제 SFTS 바이러스 감염인지 여부에 대해 역학 조사가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강원과 제주에서 모두 2명의 야생 진드기 바이러스 감염환자가 사망한 데 이어 지난 22일 부산에서 60대 남성이 야생 진드기 바이러스 의심증상으로 사망했고 전국 곳곳에서 의심환자가 잇따르고 있다.

이 여성은 그러나 대화할 수 있을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협력업체 직원 폐자재 반출 의혹 한빛원전, 檢에 수사 의뢰

한빛원전(구 영광원전)은 26일 협력업체 직원들이 원전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전선 등 폐자재를 반출하려 한 의혹이 있어 광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원전에 따르면 한전 KPS 소속 협력업체 직원 P씨는 지난 3월20일 오후 6시20분께 계획예방정비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전선 등을 소방차량을 이용해 외부로 유출해 줄 것을 원전 소방대 직원에게 요청했다는 것이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성폭행 후 도망치다 다리 골절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뒤 달아나기 위해 2층에서 뛰어내렸던 20대 남성이 두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현장에서 달미.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서모(27)씨는 지난 24일 새벽 2시10분께 광주시 서구 한 원룸에서 20대 여대생 A씨를 성폭행한 뒤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는 것.

○서씨는 피해 여성의 집을 찾은 남자친구를 피해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렸다가 두 다리가 골절돼 움직이지 못하고 인근 마늘밭에 숨어있다가 경찰의 수색 끝에 검거.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 3단계 치료로 해결

안구건조·눈피로 눈이 마르고 건조하며 침침하고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다

최근 직장인 및 수험생, TV를 자주 보는 어린이들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조금만 책을 들여다보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보자마자 눈이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고 머리까지 무거워지는 증상을 보인다. 이런 증상은 '안구건조(眼球乾燥)' 또는 '안정피로(眼精疲勞)'라고 한다. 눈피로는 보통 사람이라면 별로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에서도 쉽게 눈에 피로를 느끼고, 두통이나 시력장애, 복시(複視·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현상)를 일으키고, 심할 때는 구토까지도 일으키는 질환이다. 물론 난시, 원시, 사시의 소유자는 더욱 빨리 피로증세를 보인다.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 호소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 한다면 원인은 간에서 찾아야 한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간 기능이 울체되고 시간이 지나 간화(肝火) 혹은 간열(肝熱)이 쌓이면 그 열이 머리와 눈으로 표출된다.

이 때 간의 화기(火氣)가 인체의 상부인 머리와 눈에 영향을 미쳐 눈이 마르고 건조해지며, 침침해지고 피로해지며 심하면 '눈에서 물을 쏟는 것 같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눈을 뜨기가 힘들어 눈을 감고자 하고 상대방 눈을 쳐다보거나 힘들때 상대방도 내 눈을 쳐다보면 눈이 피로해진다거나 눈에 이물감이 있는 것 같은 말기상황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다.

안과 전문의인 **안다라한의원** 중추원 원장 **김동진**

만성피로 쉬어도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전신피로는 아무런 검사도 해봐도 특별한 질환으로 발견되지 않지만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조금만 육체적인 일을 해도 피곤이 가중되며, 휴일에 잠을 자도 피곤이 개선되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도 없다. 뒷목이 항상 뭉텅하다. 눈이 자주 침침해지고 일이 자주 마른다. 업무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폭 자기 위기 등 나름대로의 '피로회복 대책'으로 피로를 풀려고 할 뿐 피로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해야 할 질환이라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피로야말로 오히려 더 적극적인

으로 피로의 원인은 물론 몸의 건강 자체를 살려주기 때문이다. 인다라한의원은 이런 전신피로의 원인을 소화기의 약화와 기혈의 부족과 밀접,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본다.

안다라한의원 광주광역시 서구 광전동 60-24 광주은행 6층 **광주점 062-368-5075** **www.indara.co.kr** (평전사거리 광천파출소 맞은편)

광주·전남 프리모날기발

大山 23년간 약 1만명 시술경력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기적균일기**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핀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大山프리모날기발